

‘드디어 완진’ 금호타이어, 앞날은 먹구름… 난제 “수두룩”

재산피해 규모, 복구 및 공장 운영 정상화 가늠… 피해 주민 ‘눈덩이’, 보상 대책도 시급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완전 진화됐지만 운영 정상화까지는 난제가 수두룩하다.

정확한 사고원인과 피해 규모가 나와야 하고 화재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특히 일손을 놓은 2200여명에 이르는 금호타이어 공장 근로자는 물론 60여개 협력업체도 도미노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 경제계가 초비상이다.

◆정확한 재산피해 규모, 복구 및 공장 운영 정상화 가늠

20일 금호타이어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나흘째 화재가 이어진 광주공장은 이날 오전 11시55분께 화재 진압이 완료됐다. 화재 발생 이후 76시간44분만이다.

앞으로 건물 해체 작업과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와야 앞으로 공장 정상화 기간을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3년 발생했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에도 불은 58시간만에 진화됐지만 화재원인 등 감식 결과가 수개월이 걸렸고 생산재개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재산 피해에 따른 보험 보상액도 피해 복구에 이은 공장 가동 정상화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6개 보험사(DB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KB손보)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다. 보험 가입금액은 총 1조2947억원이다. 금호타이어가 이번 화재로 6개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한도는 5000억원이다.

금호타이어는 전날 공사에서 “재해 발생 금액은 현재 확인 중”이라며 “보험금 규모는 보험회사의 손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 분진 등 피해 해소…피해 주민 ‘눈덩이’, 보상 규모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연기와 분진이 퍼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사태입면 19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2공장에서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터 10시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69명의 피해 신고 109건(인적 68건·물적 30건·기타 11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관련 피해 신고 누적 건수는 총 1236건(627명)이다.

어지럼과 기침·두통을 호소하는 인적 피해는 603건, 배란다 분진과 차량 그을음 등 물적 피해는 466건으로 집계됐다. 약취와 영업 보상을 요구하는 신고는 167건 접수됐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와 전날부터 송정보건지소 1층에서 화재 피해 접수를 계속 받고 있어 피해 주민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주민은 어룡동 3만3300여명, 송정1·2동 1만5000여명, 도산·신흥동 1만8000여명 등 총 6만7000여명으로 화재 피해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는 화재로 인한 분진 등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광산구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공장 근로자는 물론

화재로 인한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 등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 의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 대한 복구비, 화재 진화 투입장비 인차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00여명 근로자·60여개 협력업체 도미노 피해…지역경제 초비상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간 생산량은 1200만본, 매출로 보면 1조원 가까운 상황에서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해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근로자 2200여명, 식당과 경비 등 150여명의 공장내 지원 인력, 여기에 60여개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생산직 근로자들은 유급형태로 집에서 대기 상태다. 노사협상 등에 따라 사

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른 휴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당규모 및 지급시기 등을 놓고 노사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2023년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대전 공장도 6개월 정도 생산이 중단되면서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등 인력구조 조정을 한 것으로 전해져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의 사고 대책이나 복구 의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에 하나 이번 화재로 인한 광주공장 축소에 따른 인원 감축이 현실화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이번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구에 상당 시간이 걸리면서 지역경제에 타격은 물론 더블스타의 복구 의지에 따라 대량 인원감축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낙서만해도 형사처벌…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엄정대응’

광주경찰청 “선거운동 방해 행위 엄정대응”

광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A(5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벽보물을 뜯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경찰은 대선 기간 각종 선거사범에 총력 대응해 공명 선거를 뒷받침하는 한편 훼손된 선거운동 시설물을 신고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는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며 “낙서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게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5·18 등 국가폭력 기록물 보관·관리는?

광주서 학술회의… 22일 전남대학교 세미나1실서 개최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에 대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2일 오후 2시30분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세미나실1에서 제2회 5·18연구자대회가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폭력 아카이브 구축의 명암’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의는 5·18 관련 기관, 단체, 국가폭력 관련 기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다.

학술회의에서는 송용한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가 ‘국가폭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표준화 기준 및 방안 연구’를 발표한다.

송 교수는 국가폭력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고려할 기준과 표준화 방안에 대해 이

야기한다.

또 윤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사례를 통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장연희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서관은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 국가폭력 기록의 권리와 책임을 묻다’를 통해 국가폭력 기록물의 소유권, 저작권에 대한 현실 문제를 진단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국가폭력 아카이브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이번 학술 행사를 통해 5·18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대와 우려, 현실을 냉철히 돌아보고 향후 5·18 아카이브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갈길 먼 금타 정상화… “사측, 노동자 생계대책 마련해야”

금호타이어(금타) 광주공장 노동자들이 사측에 공장 화재로 피해가 우려되는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안전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노조)는 20일 “사측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했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대책안 촉구

“공장정상화 최소 1년 반…노동자 생계최악”

“시민 피해 보상, 향토기업으로서 책임져야”

노조는 이날 “(공장 화재로) 가동이 무기한 중단돼 중소협력업체들의 출산 위

기 문제가 거론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한 소비 축소와 골목

상권 피해도 지역경제 전반 침체와 쇠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측은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유관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노조 또한 사측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들의 고용·생활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공장 완전 정상화에는 최소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장 노동자 2500여명의 생계는 역대 최악인 만큼 신속·안전한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는 광주지역 향토기업인 만큼 분진·가스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지자체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수단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대피 도중 20대 직원 1명이 추락해 머리와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진화 과정에서는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공장 인근 아파트 4곳 주민들은 광주여대 체육관으로 대피했다가 전날 오전 집으로 돌아왔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통일화물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